

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

청년세종을 통해 배우는 한국정치와 리더십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12월 1일 저녁 6시 30분, 곧 시작합니다.

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 철학

이 자리는 함께 묻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질문이 먼저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보다 질문, 논쟁보다 경청이 있는 토론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로서, 발언에는 위계가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기록되어 사라지지 않고, 다음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말과 태도로 정치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정치포럼의 모습입니다.

청년세종을 통해 배우는 한국정치와 리더십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개혁신당 주경야독 포럼/ 2025.12]

청년세종과 한국정치

세종국가경영연구원
King Sejong Institute of Statecraft and Leadership

박 현 모 원장



박현모 교수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세종 같은 리더 1만명을 양성한
박현모, 여기 잠들다”

[박현모 묘비명]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실장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외래교수
- 삼성HR포럼자문교수
- 美조지메이슨대학교 세종강좌
-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서/역서

- 조선정치가10인이 본 세종(2025)
- 태종평전(2021), 정조평전 (2018)
- 세종의 적술력(2016)
- 세종처럼/세종이라면(2014)
- 세종의 수성 리더십(2006) 외 다수

이야기 1

세종대왕 ABC?

가장 중요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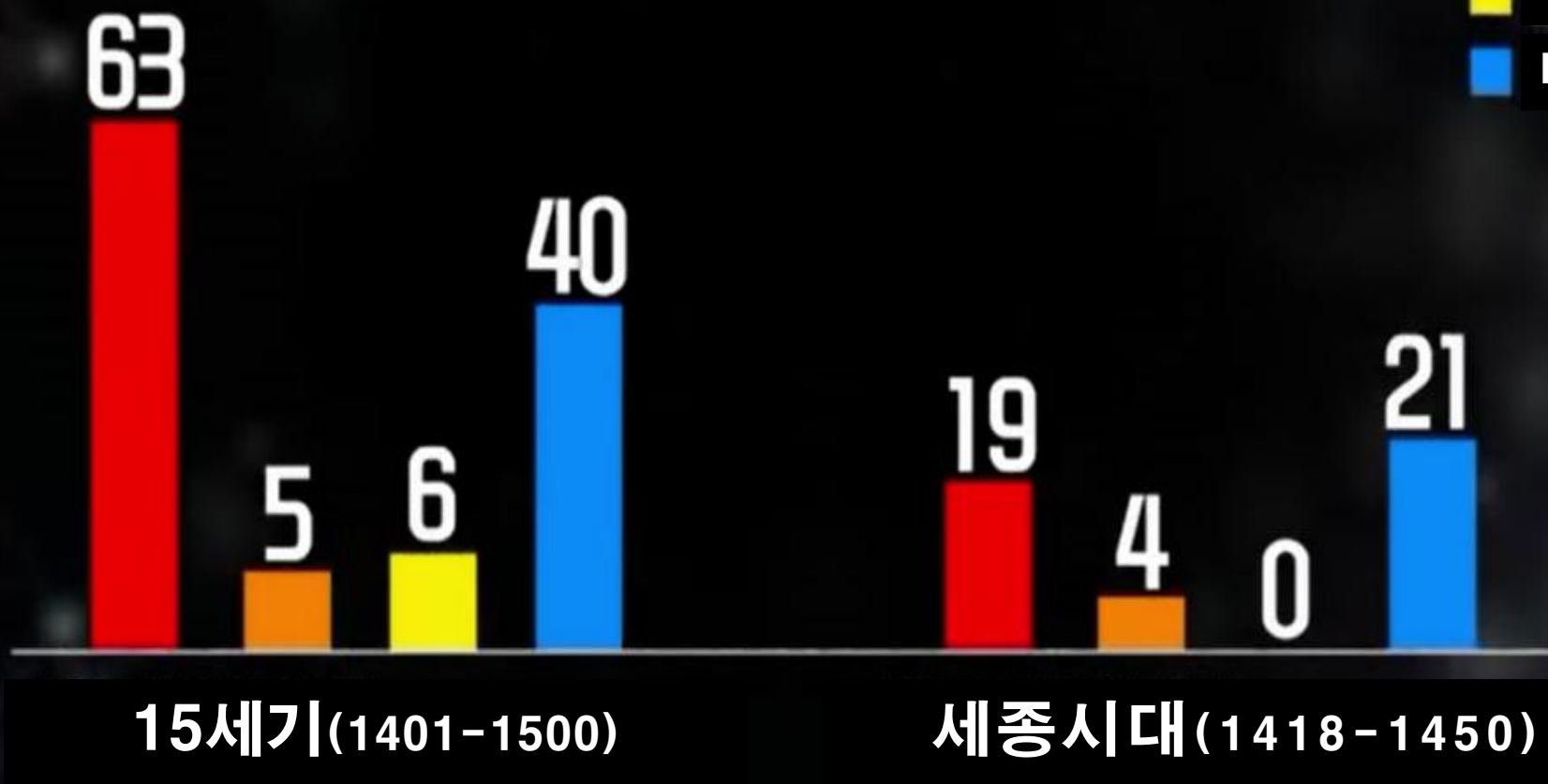
성과

Achievement

세종대왕 ABC?

C4J0K21019

15세기 과학기술 성과 건수



세종시기의 과학기술 성과 분류

구 분	민 생	국 격	국 방
과학기술 성과	석빙고,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지리지, 농사직설, 신찬팔도지리지, 향약채취월령, 향약집성방, 양부일구, 측우기, 수표, 훈민정음, 의방유취	경자자, 대간의대, 자격루, 갑인자, 칠정산 내편, 칠정산 외편, 제가역상집	철제 화포, 총통등록
총21개 (100%)	12개(57%)	7개(33%)	2개(10%)
※ 양부일구와 훈민정음은 ‘국격’에도 관계되는 업적이지만, 백성들의 일상생활(시간, 언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민생’으로 분류하였음 ※ 다른 한편 <과학사기술사사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종시대 과학기술의 명품의 하나인 ‘편경’(1424년) 역시 ‘국격’과 관련된 업적임.			



10월
18
(미상)



12월 (영도)

강
(영도)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Bridge to Goal

세종대왕 ABC?



紹述先志(소술선지). 이전 선배들이 중요하게 여겨 추진하던 일을 지금으로 계승 발전시키자면서 세종께서 1433년(세종15년)에 한 말입니다.

세종이 가장 열심히, 그리고 뛰어나게 잘 한 일은 한마디로 '잇고 살리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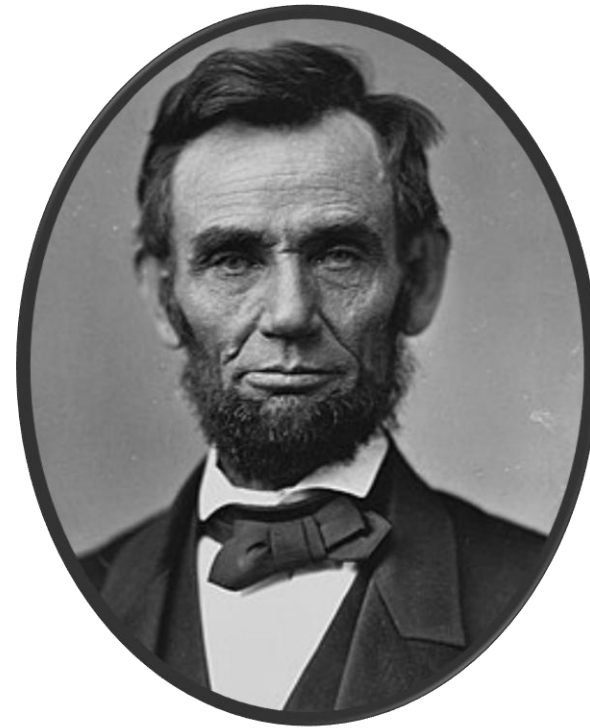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현재로 잇고, 당대 인재 사이를 연결하며, 다시 미래세대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세종의 연결 노력이 있었기에 “한 해도 흥년 아닌 때가 없었던” 그의 시대가 우리 역사상 가장 융성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리더와
비교

Compare

세종대왕 ABC?

C?



이야기 2

청년세종



‘청년 세종 어진 제작 발표회’ 열려
1년여 준비...의견 수렴에 기술 더해져
만원권으로 익숙...새로운 의미 선사 기대



박철중 작가가 9일 오전 사단법인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서클홀에서 진행된 ‘청년 세종 어진 제작 발표회 및 봉정식’에서 세종의 30대 시절 어진(御眞-왕의 얼굴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연경뉴스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세종영릉봉향회 등 주최로 ‘청년 세종어진(御眞-왕의 초상화) 봉정식’이 열렸다. 이 초상화는 1년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젊은 시절 세종대왕의 모습을 되살린 시도로 박철중 작가가 참여했다. 고 세종국가경영연구원은 밝혔다.



넘어져도 다시 걷는 이들을 위한
청년세종어진 백서

세종국가기정연구원

세종께서는 국가의 중대한 일을 의궤(儀軌)로 남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의궤는 국가의 큰 행사나 의례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후세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기록물입니다. 세종께서는 이를 “한때에 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만세에 통용되도록 하기 위한 마무리[萬世通行之制]”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재위 10년째인 1428년 9월, 태종의 상장례(喪葬禮) 전 과정을 의궤로 정리하게 하신 것도 이러한 뜻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의궤는 그러한 세종의 뜻을 이어받아, 제627돌 세종 나신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시작된 ‘청년세종어진’ 제작의 전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3월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행사를 세종국가경영연구원에 주관기관으로 의뢰하면서 단 하나의 요청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세종의 격(格)에 어울리는 행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의 격에 맞는 행사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붙들고,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를 거듭한 끝에 우리는 먼저, 세종께서 가장 오랫동안 집무하셨던 경복궁에서 행사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신 날을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생일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청년어진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글을 비롯해 세종에게 받은 것이 많은 우리로서는, 이번만큼은 세종께서 기뻐하실 만한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1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세종어진’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첫째는, 젊은 시절 세종께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위대한 군주로 성장해 가신 모습을 시각적으로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만 원권 지폐 속 나이 지긋한 모습이 아닌,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난 청년 세종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세종께서 “초상화는 모름지기 나이 젊어서 그려야 한다”고 하시며 후손에게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자 하셨던 뜻을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어진은 세종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지 형상을 남기는 것을 넘어, 선조들을 기억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매개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어진 제작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하나의 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청년세종어진은 2025년 5월 9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세종영릉봉향회 이천주 회장이 고유문(告由文)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이 어진은 1443년 세종어진이 처음 그려진 이후 582년 만에 다시 제작된 세 번째 어진입니다. 두 번째 어진은 1973년 김기창 화백이 제작한 표준 영정입니다.

20대 청년 군주 세종의 홀로서기



[1] 민생

[2] 외교와 안보

[3] 정치 소통

“세종리더십의 정수(精髓)를 보려면 세종실록의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요즘도 강의 끝 무렵에 종종 듣는 질문이다. 기업이나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사람이다 보니, 세종실록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직접 읽어볼 만한 실록의 핵심 부분을 추천해 달라는 말이다. 나는 그분들께 1423년의 실록, 즉 세종 재위 5년의 기록을 읽어보라고 추천하곤 한다.

<국역 세종실록> 제3권에 실려 있는 세종 재위 5년의 기록을 추천한 이유는 이 시기가 청년 군주 세종이 정치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불과 일 년 전인 1422년 5월까지만 해도 세종은 비록 왕이었으나 정치의 중심이 아니었다. ‘군국(軍國)의 중대사’는 모두 부왕 태종이 도맡아했고,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과 학술토론을 하거나 부왕을 거드는 역할에 머물렀다.

하지만 재위 5년부터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했다. 27세의 군주 세종이 당면한 가장 큰 난관은 경제문제였다. 계속된 흉수에 뒤이은 가뭄으로 인해 강원도를 중심으로 평안도와 함경도, 그리고 경기도 등 중북부 지역의 기근이 심각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 지역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를 떠돌면서 구걸하거나, 흙을 파서 떡과 죽을 만 들어 먹어야 하는 지경이었다(3월).

2
대외적으로도 시련이 밀려왔다. 명나라에서는 몽골 잔존 세력을 정벌하겠다고 말1만 필을 요구해왔다(8월). 우리나라의 대장경을 보내달라는 일본 태후의 요청이나, '조선에 와서 살고 싶다'고 집단 귀화해 오는 일본인들을 다독이거나 안착시키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2월).

내우외환의 이 난관을 20대 청년 군주 세종은 어떻게 헤쳐 나갔을까?

"변변치 못한 내가 왕이 되어서 홍수와 가뭄이 해마다 그치지 않고, 백성들은 여기저기를 떠돌며 근심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그 죄는 실로 나에게 있다. 마음이 아프고 신민들을 불쌍히 없어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부디 그대들은 나라에 도움되는 말이라면 조금도 꺼리지 말고 직언하라."

12
1423년 심각한 봄 가뭄 때 세종이 모든 신료들에게 당부한 이 말 속에 세종의 정치하는 방식이 들어 있다. 여기서 세종은 먼저 '부끄럽다'고 말했다. "비록 약으로 쓸 한 잔의 술이라도 결코 올리지 마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부족한 자신이 왕이 되어 가뭄이라는 '하늘의 꾸짖음(天譴)'을 받게 되었다며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렸다.

2) 다음으로 그는 '나라에 도움되는 모든 말을 직언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왕 자신의 허물을 비롯해 시행 중인 정책의 잘잘못과 백성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놀랍게도 불과 사흘 만에 조정의 모든 관리들이 부처별로 모여 "가히 시행할 만한 조건"을 갖춘 60조목의 아이디어를 냈다. 세종은 그것을 친히 재단(裁斷)한 뒤 해당 부처에 내려 쓸 만한 것은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스스로 소식(疏食)을 하면서 나라에 도움되는 말을 간청하는 세종의 태도도 인상적이지만, 그 간청이 내려진 지 며칠 만에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그 중 쓸 만한 것을 시행하는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놀라울 따름이다.

3) 세종은 시행하게 될 정책을 나라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에도 열심이였다. 출신 지역을 가려서 음식을 나눠주는 정부의 구휼책 때문에 차라리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세종은 "이제부터는 어느 곳에서 오든지 묻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구휼하고, 호적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유를 묻지 말고 모두 다 진휼하되, 기근 구제가 끝나면 그 문서를 모두 불태워서 인심을 편안하게 만들라"고 말했다.

"매일 일을 의논할 때는 진휼하는 일을 가장 먼저 아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 구휼방침을 급히 각 지역의 백성들에게 소상히 알려 궁촌 벽지의 백성들까지도 고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수령들에게 하명했다. 세종은 이처럼 직언을 듣고 나랏일을 널리 알리는 데 탁월한 소통의 군주였다.

목 차

[제1학기]

- 1-1강 세종실록, 어떻게 접근할까? / 5
- 1-2강 세종, 첫 삼을 어렵게 뜨다! / 17
- 1-3강 청년 세종, 강적을 만나다! / 26
- 1-4강 윤곽 드러나는 ‘세종식 정치’ / 41
- 1-5강 태종과 세종, 같고도 다른 리더십 / 52
- 1-6강 태종 지고, 세종 뜨다! / 66
- 1-7강 세종,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다! / 78
- 1-8강 협상가 세종, 인간 세종 이도 / 91
- 1-9강 세종의 진성(眞性) 리더십 / 100
- 1-10강 도성대화재 사건에 대처하는 세종의 자세 / 116
- 1-11강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인재 양성 최고 기회 / 130

[제2학기]

- 2-1강 조선왕조 청년기, 어떤 모습이었나? / 140
- 2-2강 내우외환에 대처하는 세종의 자세 / 153

왜 청년세종인가?

“요임금과 순임금의 지혜는
마땅히 먼저 할 일을 미리 앞서서 행한 데 있다.
오늘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겠는가?”

[堯舜之智 必先急務. 今日之急務 寡人之所欲聞也] _ 세종실록 8/4/11

_ 서른 살 청년 군주 세종이 1426년, 과거시험 문제로 출제하면서 한 질문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려는 일이 '급무(急務)'인가 '선무(先務)'인가를 깊이 헤아리는 자세이고, '마땅히 힘써야 할 일' 즉 선무를 빨리할 줄 아는 실행력이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가져와보면 어떨까? 2026년 대한민국 지도자가 빨리 해야 할 선무는 무엇일까?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도산 안창호가 유길준의 뜻을 계승, “사(士)를 양성하는 단체라는 뜻”으로 흥사단(興士團)을 조직하면서 한 말이다. 안창호가 청년 문제를 민족의 선무로 보고 인재 교육을 중시한 것은 기본적으로 나이 많은 기성 인물을 변화시키는 일이 지극히 어렵다고 보았고, 또 “지금 나무를 심지 않으면 나중에 결실 거두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창호는 '20세기의 세종'이라고 할 만큼 세종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청년을 끔찍이 아낀 점이다. 세종이 즉위한 지 4개월 만에(1418년 12월) 집현전을 설치하고, 젊은 인재들과 국가의 미래를 의논하여 준비한 것처럼, 안창호는 평양 대성학교를 열고(1907년) 흥사단을 창설하였다(1913년). “정치란 국민 각자가 저마다의 밥벌이를 가능하게 만들고, 유쾌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한 안창호는 이상촌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생생지락(生生之樂), 즉 세종이 말한 ‘일터가 즐거운 나라’로 가꿔나갈 것을 강조했다.

세종과 안창호가 비슷한 또 다른 점은 '준비'를 매우 강조한 점이다. 세종은 즉위 초의 상왕체제, 즉 부왕 태종이 군사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집현전을 세우고 성균관을 개혁하여 인재를 기르고 미래를 준비했다. 집현전 학사들에게 사가독서제라는 독서휴가제를 실시해 능력을 배양케 한 것은 유명하다. 성균관 유생들의 숙소를 온돌시설로 바꾸고 목욕탕을 만들게 하는가 하면, 의사를 상근하게 하는 등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인재는 정치를 잘하게 하는 본원이요,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터전”인 만큼 나라에서 인재를 흥기시키고 양성하는[興起作成]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안창호 역시 ‘인물 없음을 한 하지 말고, 먼저 인물 되기에 힘쓰라’고 강조한 리더였다. 그는 청년들에게 헛된 꿈을 좇아다니기 보다는 자기 실력을 쌓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3·1운동을 겪으면서 곧 독립이 될 것처럼 흥분하여 봉기를 주장하던 “지도자들이 다 낙심하여 물러앉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안창호는 “이것은 무계획하게 동(動)하던 자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기초와 재목이 없이 집부터 지으려 하고, 자본도 없이 영업 광고부터 내려 하던 자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
세종이라면 어떻게?**

마무리

살고 싶다는 기쁨

세종말씀 백하고로 가르치고 영행함  

1423년 윤9월 3일, 스물일곱의 청년 군주 세종이 친정(親政)에 나서며
처음 내놓은 말이 생생지락(生生之樂),
“모두가 일터에서 신명 나게 살아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자” 였습니다.

질문

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

에너지 정책의 속사정

권효재 COR Energy Insight 대표

참고도서: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

12월 8일 저녁 6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 사 합 니 다